



강진군은 최근 농가에서 수확한 쌀귀리를 본격 수매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쌀귀리 본격 수매 돌입

250여 농가 700ha 수확 마무리
치매예방 품종 '대양' 시범재배
고소득 작물... 35억 매출액 기대

250여 농가가 계약재배로 약 700ha의 면적에서 쌀귀리 수확을 마쳤다. 강진군에서 재배되는 쌀귀리 품종은 대부분은 '조양' 품종이지만, 최근 '대양' 품종에서 치매 예방 물질인 Avn-C(아베난쓰라미드) 성분이 조양보다 11.9배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따라 '대양' 재배 면적을 늘려 올해는 약 20ha정도에서 시범 재배했다. 특히, 지난해 국비사업인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 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대양' 품종 이용 확대와 가공 제품화를 위한 원료국산 안정 생산의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유례 없는 가뭄과 4월 이상 기온으로 수매량이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대비 16.6% 오른 금액으로 수매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쌀귀리는 보리에 비해 소득이 2배 높은 고소득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올해 약 2,000톤, 약 35억 원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아 농업기술센터 과장은 "최고품질의 쌀귀리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고품질 재배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며 "쌀귀리를 이용한 가공 제품 개발에 많은 소비자가 다양한 형태로 강진 쌀귀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최근 쌀귀리 국산 개발을 시작으로 고추장·선식·떡·빵·조청, 침출자 등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강진군에서 본격적인 쌀귀리 수매를 시작했다. 온화한 기상여건으로 추위에 약한 쌀귀리 재배 적지로 알려진 강진군은 2008년부터 꾸준한 쌀귀리 재배 기술 및 면적 확대로 전국 최고품질·최대면적의 전진기지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는 관내 약

광양매일시장, 경쟁력 확보 이벤트 '풍성'

특가판매·공연·경품 추첨 등
광양시가 최근 유통 환경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매일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손님맞이에 나섰다. 광양매일시장 상인회는 노래자랑, 특가 판매,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광양시

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후 대형마트와 맞설 경쟁력과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광양시는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단계인 문화재 발굴을 끝내고 내년 7월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택형 광양매일시장상인회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이 고객의 발길을 모으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앞

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26일까지 중마시장 내에서 특가판매행사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포스코 등 기업 관계자 등과 전통시장 이용 동참 릴레이 운동 등을 통해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권동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로타리클럽, 청소년센터 100만원 후원
국제로타리 3610지구 장흥로타리 클럽은 최근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역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100만원을 후원했다. 장흥로타리클럽은 지난 2019년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을 맺고, 매년 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원금을 확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센터 이용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중에서 진로,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의료, 법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흥로타리클럽은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에도 180만원 상당의 공기정정기를 지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진도공공도서관, 독서인문교육 성료
진도공공도서관은 6월 한달간 진도초등학교 포함해 관내 6개교 45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 독서인문교육 '생태환경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초등 독서인문교육은 학생들의 독서력 신장 및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 책 작가 '최원형', '이육재'를 초청해 '환경과 생태 쫓아는 초등학생', '환경을 지키는 참된 용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학생들이 생태 시민으로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박병호 기자



한국남동발전(주), 현장 재난·안전 경영활동
한국남동발전이 최근 여수발전본부에서 하계전력피크대비 현장 재난·안전 경영활동을 시행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 안전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회천 사장은 제어실에 근무하는 발전전원들을 격려하며 하계 전력 피크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발전본부는 이번 CEO안전경영 활동을 통해 노·사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순천문화재단, 오늘부터 '청춘마이크' 공연

'마을 별자리 프로젝트' 콘셉트

순천문화재단이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담양·장성·광양·곡성에서 '마을 별자리 프로젝트-하늘, 별, 달, 빛 마을을 잇다'라는 콘셉트로 '202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광주·전남' 공연을 개최한다. 올해 '청춘마이크 광주·전남'은 광주·전남 권역의 같은 이름을 가진 마을과 마을을 청춘마이크로 연결해 하나된 마을 별자리를 만들어가는 기획으로 구성했다. 단순 공연을 넘어 마을 이야기와 공연을 결합해 평상시에 공연을 접하기 힘든 오지 마을들로 찾아가 직접 마을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늘은 담양군 달빛무월마을과 장성군 별내리마을에서, 2일은 광양시 산달뱅이마을과 곡성군 하늘나리마을에서 다양한 청년예술가들이 각각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튿날인 2일에는 광양 산달뱅이마을과 곡성 하늘나리마을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 양쪽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를 실시간 청춘마이크에 담아 주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광주·전남 곳곳의 마을로 청년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 누군가에게 '생애 처음인 공연'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무안연꽃축제장서 전국노래자랑 열린다

19일까지 접수·23일 개최

제25회 무안연꽃축제에 맞춰 KBS전국 노래자랑 무안군 편이 오는 23일 오후 3시 무안화산백련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30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국노래자랑 '무안군 편'의 예선은 오는 21일 오후 1

시 무안 송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무안군 주민이면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고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본선은 오는 23일 화산백련지에서 공개녹화로 진행되며 김연자, 김혜연, 박구윤, 박진도, 원플러스원 등 초청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완도농협이 최근 완도농협 회의실에서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를 가졌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 올해 첫 '농업인 행복버스' 출발

장수사진 촬영·검안·돋보기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와 완도농협(조합장 김미남)은 최근 완도농협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복지 접근성

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의료지원, 장수 사진 촬영, 검안·돋보기 지원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농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개인별 검안 후 맞춤형 돋보기를 제공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성진 기자